

2011. 3. 3 (Vol. 11)

2011년 1월 관광동향분석

Korea Tourism Statistics

01 방한외래관광객



02 국민해외관광객



03 관광수지



04 세부 통계분석



05 서비스업 생산지수



06 최신 참고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01

방한외래관광객

● 1월 방한외래관광객 586,152명,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



단위: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
2006년	6,155,046	2.2
2007년	6,448,240	4.8
2008년	6,890,841	6.9
2009년	7,817,533	13.4
2010년	8,797,658	12.5
2011년 1월	586,152	2.9

주1 *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최근 3개년 방한외래관광객 수 변화 그래프〉



주요 국가별 동향

● 2011년 1월 중국관광객 전년동기 대비 24.9%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필리핀	러시아
2006년	2,339(-4.1)	897(26.3)	556(4.7)	338(-3.8)	143(-14.1)	248(11.5)	145(0.5)
2007년	2,236(-4.4)	1,069(19.2)	587(5.7)	335(-0.9)	140(-1.9)	264(6.3)	140(-2.9)
2008년	2,378(6.4)	1,168(9.3)	610(3.9)	320(-4.5)	160(14.4)	277(4.9)	136(-2.9)
2009년	3,053(28.4)	1,342(14.9)	611(0.2)	381(18.9)	216(34.6)	272(-1.7)	137(0.5)
2010년	3,023(-1.0)	1,875(39.7)	653(6.8)	406(6.8)	229(5.9)	297(9.4)	151(10.0)
2011년 1월	196(-6.2)	114(24.9)	44(2.5)	25(-30.2)	15(2.6)	24(12.6)	13(16.3)

주1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주요 대륙별 동향

● 2011년 1월 아시아주 446,485명,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06년	4,605(2.6)	673(5.2)	535(5.1)	92(7.4)	21(16.1)
2007년	4,747(3.1)	716(6.4)	559(4.6)	108(17.8)	24(12.0)
2008년	5,092(7.3)	745(3.9)	592(5.9)	128(18.3)	26(10.9)
2009년	6,075(19.3)	752(1.0)	598(0.9)	130(2.3)	29(8.7)
2010년	6,839(12.6)	814(8.3)	646(8.0)	146(12.0)	34(18.4)
2011년 1월	446(3.1)	55(2.0)	50(6.9)	10(-13.2)	3(17.4)

주1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02

국민해외관광객

● 1월 국민해외관광객은 1,268,007명, 전년동기 대비 13.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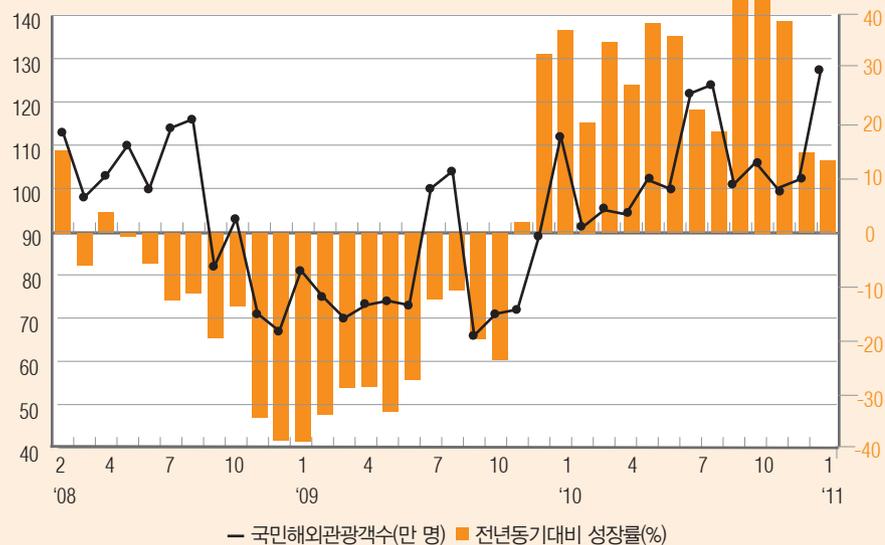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
2006년	11,609,879	15.2
2007년	13,324,977	14.8
2008년	11,996,094	-10.0
2009년	9,494,111	-20.9
2010년	12,488,364	31.5
2011년 1월	1,268,007	13.4

주1 *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최근 3개년 국민해외관광객 수 변화 그래프〉



03

관광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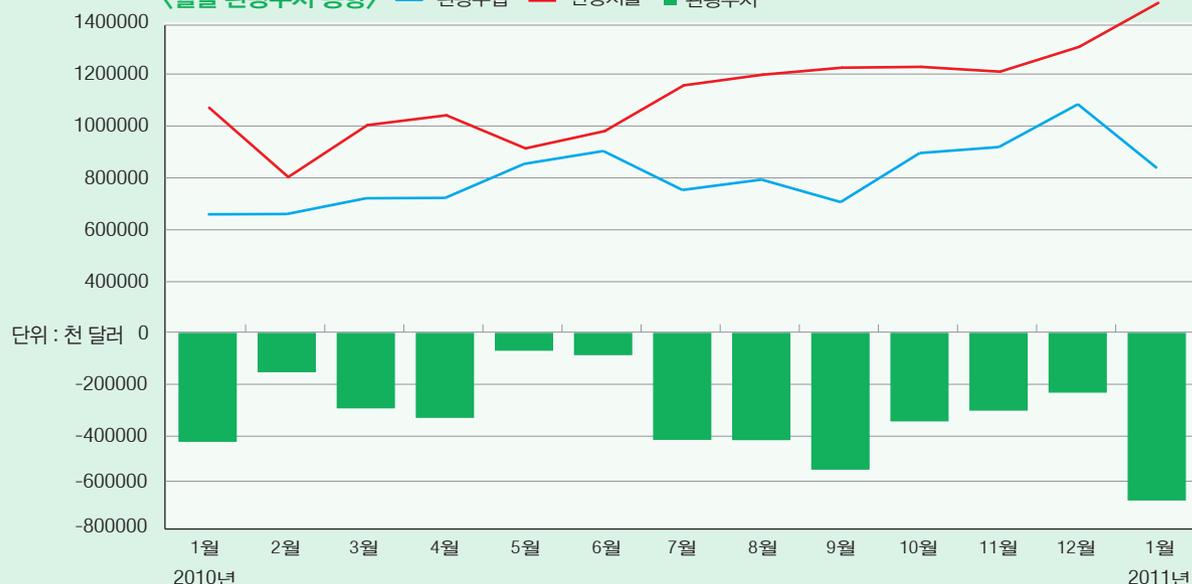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관광수입	*인당 관광수입(\$)	↑ 관광지출	*인당 관광지출(\$)	관광수지	유학수지
2006년	5,760 (-0.6)	936	14,338 (19.2)	1,235	-8,576	-4,487
2007년	6,094 (5.8)	945	16,950 (18.2)	1,272	-10,857	-4,980
2008년	9,719 (59.5)	1,410	14,581 (-14.0)	1,215	-4,862	-4,430
2009년	9,782 (0.7)	1,254	11,040 (-24.3)	1,170	-1,258	-3,963
2010년	9,678 (-1.1)	1,108	13,185 (19.4)	1,059	-3,508	-4,446
2011년 1월	838 (27.0)	1,429	1,479 (37.6)	1,166	-641	-520

주1 2010년 이후는 잠정치,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인당 관광수입 = 관광수입 ÷ 방문 외래관광객, *인당 관광지출 = 관광지출 ÷ 국민 해외관광객

〈월별 관광수지 동향〉 — 관광수입 — 관광지출 ■ 관광수지



04

1) 입국자 교차분석

세부 통계분석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 외국인 입국자에 대하여 연령별, 성별, 목적별, 교통수단별 비중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실시



- 연령별로 보면, 20대~5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측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50대 이상의 방문자는 기대빈도보다 높고 40대 이하의 방문자는 기대빈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20대~40대의 방문자는 기대빈도보다 높고 10대 이하, 50대 이상의 방문자는 기대빈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전반적으로 기대빈도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10대 이하 방문자가 기대빈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X^2 독립성 검증에 의하면 3개 국가의 연령별 분포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X^2 17,797.71, p값 0.000)

국적·연령 교차분석표 (1월)

구분	연령								합계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 이상		
일본	관측빈도	3,755	7,723	38,457	41,171	40,679	34,963	22,136	4,976	193,860
	기대빈도	4,958	8,438	41,006	41,868	41,918	33,547	18,016	4,109	193,860
중국	관측빈도	2,395	5,334	23,233	23,150	22,117	13,504	4,732	997	95,462
	기대빈도	2,442	4,155	20,192	20,617	20,641	16,520	8,872	2,024	95,462
미국	관측빈도	2,284	1,297	8,062	6,897	8,507	8,598	3,778	1,017	40,440
	기대빈도	1,034	1,760	8,554	8,734	8,744	6,998	3,758	857	40,440
합계	관측빈도	8,434	14,354	69,752	71,218	71,303	57,065	30,646	6,990	329,762
	기대빈도	8,434	14,354	69,752	71,218	71,303	57,065	30,646	6,990	329,762

주: 기대빈도(expected count)는 두변수가 서로 독립적인 경우 기대되는 정도를 의미

- 성별로 보면, 일본은 여성 방문자의 비율이 높고 중국과 미국은 남성 방문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X^2 독립성 검증에 의하면 3개 국가간의 성별 분포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X^2 5,694.92, p값 0.000)

1) 입국자 교차분석

국적·성별 교차분석표 (1월)

구분		성별		합계
		남	여	
일본	관측빈도	86,621	107,239	193,860
	기대빈도	95,943	97,917	193,860
중국	관측빈도	50,704	44,758	95,462
	기대빈도	47,245	48,217	95,462
미국	관측빈도	25,877	14,563	40,440
	기대빈도	20,014	20,426	40,440
합계	관측빈도	163,202	166,560	329,762
	기대빈도	163,202	166,560	329,762

- 목적별로 보면, 관광목적의 방문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측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관광목적의 방문자는 기대빈도보다 높고 관광외 목적의 방문자는 기대빈도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관광목적의 방문자는 기대빈도보다 낮고 상용, 유학연수 등의 방문자는 기대빈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공용, 기타 등의 방문자는 기대빈도보다 높고 유학연수 목적의 방문자는 기대빈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X^2 독립성 검증에 의하면 3개 국가간의 목적별 분포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X^2 110,327.05, p값 0.000)

국적·목적 교차분석표 (1월)

구분		목적					합계
		관광	상용	공용	유학연수	기타	
일본	관측빈도	189,601	1,697	115	557	4,331	196,301
	기대빈도	150,966	6,088	907	1,752	36,589	196,301
중국	관측빈도	55,070	8,251	63	2,432	48,111	113,927
	기대빈도	87,616	3,533	527	1,017	21,235	113,927
미국	관측빈도	27,866	1,042	1,460	173	13,611	44,152
	기대빈도	33,955	1,369	204	394	8,230	44,152
합계	관측빈도	272,537	10,990	1,638	3,162	66,053	354,380
	기대빈도	272,537	10,990	1,638	3,162	66,053	354,380

1) 입국자 교차분석

- 교통수단별로 보면, 인천공항의 이용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측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김포공항 이용자는 기대빈도보다 높고 인천항, 기타의 이용자는 기대빈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인천항, 기타의 이용자는 기대빈도보다 높고 김해공항, 김포공항의 이용자는 기대빈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인천공항의 이용자는 기대빈도보다 높고 김포공항, 제주공항, 인천항의 이용자는 기대빈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χ^2 독립성 검증에 의하면 3개 국가간의 교통수단별 분포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χ^2 109,850.27, p값 0.000)

국적 · 교통수단 교차분석표 (1월)

구분	교통수단							합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부산항	인천항	기타		
일본	관측빈도	101,483	17,660	60,988	7,699	7,547	36	888	196,301
	기대빈도	116,994	13,004	35,426	6,653	7,303	11,359	5,561	196,301
중국	관측빈도	70,523	4,035	1,635	4,279	5,014	20,425	8,016	113,927
	기대빈도	67,900	7,547	20,560	3,861	4,238	6,593	3,228	113,927
미국	관측빈도	39,202	1,781	1,331	33	623	46	1,136	44,152
	기대빈도	26,314	2,925	7,968	1,496	1,643	2,555	1,251	44,152
합계	관측빈도	211,208	23,476	63,954	12,011	13,184	20,507	10,040	354,380
	기대빈도	211,208	23,476	63,954	12,011	13,184	20,507	10,040	354,380

04 2) 내국인 출국 비교

세부 통계분석

- 출국자의 연령별 분포를 전년동기 대비로 볼 때, 2011년 1월에는 청년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며, 구성비로 볼 때는 30대~50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출국자 (1월)

연령별	출국자(명)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구성비(%)
	2010년 1월	2011년 1월		
합계	1,118,261	1,268,007	13.4	100
0 ~ 10	38,784	50,606	30.5	3.9
11 ~ 20	121,735	158,986	30.6	7.2
21 ~ 30	178,588	195,045	9.2	15.8
31 ~ 40	212,503	235,449	10.8	20.5
41 ~ 50	236,036	261,329	10.7	19.7
51 ~ 60	162,459	180,784	11.3	15.3
61 ~ 70	63,229	70,397	11.3	7.1
71 ~	17,066	19,940	16.8	1.9
승무원	87,861	95,471	8.7	8.5

- 출국자의 성별 분포를 전년동기 대비로 볼 때, 2011년 1월에는 여성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구성비로 볼 때는 남성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 출국자 (1월)

연령별	출국자(명)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구성비(%)
	2010년 1월	2011년 1월		
합계	1,118,261	1,268,007	13.4	100
남성	584,686	644,566	10.2	51.4
여성	445,714	527,970	18.5	40.1
승무원	87,861	95,471	8.7	8.5

- 출국 교통수단별 분포를 전년동기 대비로 볼 때, 2011년 1월에는 부산항, 김해공항의 증가율이 높은 반면 제주공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성비로 볼 때는 인천공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통수단별 출국자 (1월)

연령별	출국자(명)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구성비(%)
	2010년 1월	2011년 1월		
합계	1,118,261	1,268,007	13.4	100
인천공항	844,042	948,973	12.4	74.9
김해공항	100,839	116,945	16.0	9.2
김포공항	66,091	70,949	7.4	5.6
제주공항	3,084	2,554	-17.2	0.3
부산항	48,089	57,808	20.2	4.3
인천항	14,203	16,212	14.1	1.6
기타	41,913	54,566	30.2	4.1

05

서비스업생산지수

(자료원 : 통계청)

- 2011년 1월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9%) 및 여행사업(11.6%) 생산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
- 반면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9.9%감소



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 2011년 1월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
 - 호텔업(7.7%), 여관업(4.4%), 휴양콘도운영업(4.8%) 생산지수 전년동기 대비 모두 증가

단위 : 2005년 = 100,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115.4(1.1)	116.5(4.5)	131.7(11.6)	123.0(7.5)	138.1(5.7)	126.2(5.9)
호텔업	129.7(7.8)	134.1(5.2)	153.6(13.9)	141.2(5.5)	161.2(3.0)	136.3(7.7)
여관업	95.0(-4.2)	100.6(4.4)	107.0(7.8)	107.4(8.6)	113.1(11.8)	108.6(4.4)
휴양콘도 운영업	123.5(-5.8)	99.3(0.1)	124.2(8.3)	111.9(12.3)	148.8(3.9)	156.5(4.8)

주: 불변지수,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나. 여행사업

- ▶ 2011년 1월 여행사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

단위 : 2005년 = 100,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여행사업	93.5(-25.6)	129.2(87.2)	156.1(88.1)	127.7(61.6)	129.2(38.8)	122.3(11.6)

주: 불변지수,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다.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2011년 1월 유원지 테마파크 운영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9.9% 감소

단위 : 2005년 = 100,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8.0(-10.5)	83.1(39.0)	110.7(43.6)	63.6(42.3)	85.6(-1.2)	89.5(-19.9)

주: 불변지수,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국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소의 서비스업동향 분석 및 연구자료, GDP 추계자료에 활용
- **불변지수** : 경리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하며, 월별경상매출액 중 가격 변동분을 제거하여 업종의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디플레이터: 2005년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06

최신참고자료



● 1/4분기 소비자태도 조사 (2011.2. 15 삼성경제연구소)

- * 2011년 1/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51.8)보다 2.6p 낮아진 49.2을 기록
- 최근 생활물가 및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물가불안심리가 고조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
- * 2009년 2/4분기(48.9) 이후 7분기 만에 기준치(50)를 하회

구분	'09 4/4	'10 1/4	'10 2/4	'10 3/4	'10 4/4	'11 1/4
전체 소비자태도지수	53.2	51.9	52.7	52.2	51.8	49.2
문화·오락비 소비자태도지수	34.2	44.9	46.5	47.7	48.2	47.1

주1 기준치: 50

- * 2011년 1/4분기 문화·오락비 지출 계획

구분	응답자수	많이 늘림	조금 늘림	불변	조금 줄임	많이 줄임
전체	1000	0.3	13.9	61.5	22.3	2.0

● 2월 소비자 동향지수 (2011.2.24. 한국은행)

- * 2011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여행비, 교양·오락·문화비 부분)

	2010년								2011년		B-A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A)	2월(B)	
여행비	90	92	92	91	91	91	91	90	90	91	(+1)
교양·오락·문화비	97	98	96	97	97	97	97	97	96	96	(-)

● 2011년 1월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2011.2.25. 국토해양부)

- * 겨울방학 등의 성수기 효과, 환율안정으로 인한 지속적인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여객 및 항공화물이 전년 대비 각각 11.7%, 3.8% 증가
- * 국제여객 : 2008년 1월(338만 명)보다 7.3% 증가,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
- * 국내여객 : 폭설, 한파 등 기상악화로 전년동기 대비 -1.7% (146만 명→144만 명)
- * 항공화물 : 국제항공화물 시장이 12월부터 증가세가 강화되는 추세로 전년대비 3.8 증가 (280천 톤→291천 톤)
- * 장기간의 구정연휴 및 경기회복 영향으로 인한 내국인 출국 수요 증가, 중국관광객 증가 등으로 월에도 여객수요가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 * 화물은 장기간의 구정연휴로 인하여 전년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하다가 2분기부터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